

# 광주 아파트 39곳 경비·청소원 휴게실 만든다

### 광주시 근무환경 개선사업 휴게소 신설·냉난방시설 설치 “내년 대상 확대 계획”

광주시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노동자들이 휴식, 식사 장소가 마땅치 않고 냉난방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사업비를 지원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39곳을 선정,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기로 확정했다.

선정 내용을 보면 휴게소가 없는 2곳은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휴게실 2곳은 지상으로 옮긴다. 노후 휴게실 7곳은 증·개축하고 28곳은 시설개선,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춘다.

시는 지난해 7~8월 관내 1040여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의 30% 가량이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연말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인 시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30%, 자비로 20%를 충당한다.

한편 지난 2월 자치구의 수요조사 결과 자치구와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설 12곳, 증·개축 23곳, 시설 개선 62곳 등 총 96곳에서 총사업비 12억원이 신청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성과 반응 등을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아파트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생활습관 배워요”

### 광주시 초등학교 순회 교육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 음식물쓰레기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5년에는 광역시 승격 이후 사상 최고치인 537t이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발생량도 0.36kg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 처리시설 악취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69개 학교 615개 학급 1만4023명의 학생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받았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육 희망학교를 신청 받았으며, 현재까지 32개 학교 420개 학급이 접수한 상태다. 이번 교육은 21일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학교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행정이지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주체는 시민과 지역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홍보와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이후 가정과 소형 음식점 등 자치구에서 책임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15만7886t(1일 433t)에서 2017년 14만6382t(1일 401t)으로 7.2% 감소했다.

이들 통해 지난해에만 69개 학교 615개 학급 1만4023명의 학생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받았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육 희망학교를 신청 받았으며, 현재까지 32개 학교 420개 학급이 접수한 상태다. 이번 교육은 21일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학교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행정이지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주체는 시민과 지역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홍보와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이후 가정과 소형 음식점 등 자치구에서 책임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15만7886t(1일 433t)에서 2017년 14만6382t(1일 401t)으로 7.2% 감소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봄 나들이 장소 주변 식품안전점검

광주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원·유원지, 철도역·터미널 인근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액체질소 사용 과자 등 인체 위해우려 식품 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식품, 원산지 무표시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판매 등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환안한 시 식품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취급업소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제공, 철저한 위생관리, 친절 한 손님맞이 등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하철 서비스 높이기 광주시시설공사(사장 김성호)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본사 대강당에서 강민주 KEB하나은행 CS전문강사를 초청, ‘고객만족 서비스 역량 강화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비스마인드 및 커뮤니케이션 화법 등 고객과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광주도시시설공사 제공>

## 광주 농기계임대사업소 6월까지 운영시간 연장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연장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다.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임대용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전날 오후 5시부터 임차할 수 있다.

기종별로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광산분소 062-613-5328~9 / 북부분소 062-575-5745~6)로 임차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새벽부터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평일 오전 7시부터 농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기 운영하고, 전날 오후 5시부터 농기계 출고가 가능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며 “지역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인양유치원·광주교대부설초교·서강고·정광고

##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곳 선정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모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곳을 선정하고, 지난 16일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청소년들이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조화롭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협의회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학교 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시범학교는 ▲인양유치원(원장 김정화) ▲광주교대부설초교(교장 최영순) ▲서강고(교장 강선태) ▲정광고(교장 임형철) 등 4곳이다. 업무 협약식에는 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시범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행·재정적 지원을 상호 약속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모델 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우수하다”며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길 터주기’ 모의훈련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21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함께해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1일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양보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과 더불어 5개 소방서별로 소방차 진입장에 지역과 주요 정체도로에서 실제 출동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차에 탑승해 훈련에 참여하는 동승체험을 할 수 있다. 동승체험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생·시민·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서부소방서(613-8553)와 남부소방서(613-8653)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소방차 통로 확보가 최선이다”며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알아두면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h3>덕남동 -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li> <li>■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li> <li>■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li> <li>■ 도시지역, 자연녹지</li> <li>■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li> <li>■ 매매 - 평당 20만원</li> <li>■ 일사불대폭 조정가</li> </ul>	<h3>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li> <li>■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li> <li>■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li> <li>■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li> <li>■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li> <li>■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li> </ul>	<h3>거문도,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li> <li>■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li> <li>■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li> <li>■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li> <li>■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li> </ul>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li> <li>■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li> <li>■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li> <li>■ 모든업종 오픈가능</li> <li>■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li> <li>■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li> <li>■ 매매 - 11억 (조정가)</li> </ul>
---	--	---	---